

'철모르는' 식중독 비상

노로바이러스·세균성 이질 기승 광주·전남 설사·복통 환자 북적

겨울철 건강 북병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어린이 설사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했던 세균성 이질까지 계절에 상관 없이 발병하고 있어 겨울철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월15일~12월8일까지 시내 병·의원을 찾은 소아 설사 환자 80명으로부터 채취한 가검물 80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인 40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여름철인 올 6월~10월까지 1주 평균 설사환자가 검출 50여건 가운데 1~2건 정도에서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비하면 폭증한 수치다.

14일 현재 광주시 남구 미래아동병원의 내원환자 10~20%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복통과 설사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도 50~60명의 어린이 환자들이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추위에 강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다. 대장균 등으로 인한 세균성 식중독은 주로 여름철에 발생해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바이러스는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에는 난방환경이 좋아진 데다, 겨울철에도 식당 등 조리시설의 실내온도가 높아 수인성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도 과천시 요양원에서 집단 설사가 발생해 6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요양원 직원과 입소자 9명에서 이질 세균(Shigella flexneri)이 검출됐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영광군 한 것갈 작업장에서 직원 10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증세를 호소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노로바이러스와 세균성 이질균이 각각 6명과 2명에서 검출됐다.

최근 5년 동안 세균성 이질의 월별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오염된 음식이나 음용수를 통해 체내에 들어와 장염을 일으킨다. 쉽게 감염돼 메스꺼움·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

▲세균성 이질=입을 통해 들어온 시겔라(Shigella)균이 체내에서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법정 1종 전염병. 발열·복통·구토 증상을 보이고, 점액·농·혈액이 섞인 설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발생비율을 분석한 결과 11월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월 14%, 4월 11.6%, 8월 10.4% 순으로 파악됐다. 이는 겨울철에도 병원성 세균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반면, 개인위생에 대한 관념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권순석 화순전남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겨울철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손씻기 및 주방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집단급식시설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옛 도청 보전’ 촛불집회. 5·18단체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와 ‘광주·전남아고라연합’은 지난 13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에서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앞서 참가자들은 전남대 정문을 출발, 광주역, 유동시거리, 행사장에 이르는 4km 구간을 행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별단속 비웃는 음주 교통사고

광주 이달에만 11건...51명 인명 피해

송년 술자리의 불청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일곡동 하남농협 앞 도로에서 김모(27)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에서 박모(32)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시내버스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일 새벽 5시50분께에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이모(36)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하는 등 이달 들어 광주지역에서만 11건(사망 1명, 부상 50명)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나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음주예방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이날 현재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769건,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모두 841건이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브레이크 없는 공무원 음주운전

광주시·일선 구청 2년동안 45명 적발

최근 2년 동안 광주시 행정공무원 45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와 일선 기초단체가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사실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행정공무원은 모두 45명이다. 지난해엔 17명, 2005년엔 28명이었다.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13명 ▲서구 6명 ▲남구 2명 ▲광산구 2명 등이었다. 북구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올해 적발된 행정공무원 17명 중 6명은 면허 취소(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9명은 면허 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1% 미만) 처분을 당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단속 당시 일반 회사원 또는 무직 등으로 직

업을 속여, 소속기관의 징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법규위반 공무원 문책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중징계, 면허 정지 때 훈계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행정공무원 수가 감소하긴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된 직원에 대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678) 김장동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전화

가짜 사이트 개설 역대 가로채... ○가짜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달미.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대표 통장과 대표폰을 개설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는데,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잠복수사 끝에 주씨를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20대 남성 잇따라 숨져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D아파트 11층에 사는 A(20)씨가 이 아파트 현관 2층 난간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괴로워했다는 주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서구 화정동 야산에서 광주 모 대학교 2년 B(22)씨가 흥기에 걸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의 복부에는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가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최근 광주 모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

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손찌검 했다면?

정상참작 되나 폭력 처벌 불가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을 타이르다 손찌검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훈계차원이라도 폭행이 있었다면 처벌 받게 된다.

A(40)씨는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PC게임방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교 3년생 B(17)군과 마주쳤다.

A씨는 B군에게 흡연의 폐해를 설명하고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을 발로 한 차례 때렸고, B군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훈계한 것은 맞지만 때린 적은 없다. 나무란 것도 죄가 되느냐"고 주장했지만, B군은 "내년이면 대학생인

데, 왜 때리느냐. 한 차례 폭행당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폭행 혐의의 경찰에 입건됐다.

C(36)씨는 지난 2일 밤 11시께 북구 운암동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중생 D(16)양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데다 전과가 없고 폭력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훈계를 하다 도가 지나쳐 폭력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폭력은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na Tour' (하나투어) featuring travel packages, a '1st Place Travel Agency' award, and various tour options like 'LC TOUR' and 'Japan Travel'.